

패기·열정·도전 ... “우리에게 준우승은 없다”

내달 2일 결승 ... 양대리그 4팀 출사표

무등기 사회인야구대회 우승컵을 향한 '마지막 승부'가 펼쳐진다.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제 4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대망의 결승전이 오는 2일 무등경기장야구장에서 치러진다. 오전 10시 무등산생태요양병원과 오렌지클래쉬가 광일리그 우승을 다투고 오후 1시에는 허버베이스볼클럽과 세한기업재규어스가 무등리그 결승전을 치른다. 결승 무대에 진출한 4팀은 우승을 향한 최후의 열전을 준비하고 있다.



세한기업 재규어팀.



허버 베이스볼 클럽팀.

무등리그

◇세한기업 재규어스(대표 정경국·서승태)
세한기업 재규어스에게는 이번이 세 번째 우승 도전이다. 무등기 1·2회 정상에 오른 전종과 실력의 팀답게 '즐기는 야구'를 우승 전략으로 삼았다. 주축 멤버들이 호흡을 맞춘 지 10년이 다 된 만큼 호흡이 적절 맞는다.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뛰어나다.
무엇보다 큰 경기에 강한 강심장들이다. '준우승은 없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그들. 숱한 결승전을 치르면서도 단 한 차례 패배를 기록하는데 그친, 결승의 사나이들이다.
이번 대회에는 운도 많이 따랐다. 1회전에서 대거 점수를 뽑아내

“즐기는 야구로 우승” “팀워크로 지키는 야구”

세한기업 재규어스 VS 허버 베이스볼 클럽

며기분 좋은 첫 승을 달렸고 부전승으로 2회전을 통과하기도 했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짱짱한' 실력을 발휘하겠다는 각오다.
▲단장:김치균 ▲감독:정경국 ▲총무:서승태 ▲선수:김승걸 국범석 최경민 김성주 서승철 김두복 김용운 임현석 박상신 김민영 김상선 오창욱 홍성준 홍길준 김강민 이병준 김용신 이태훈 이승민 문상준

◇허버 베이스볼 클럽(대표 고기영)
야구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승이다. 야구 연습장에서 만난 이들이 한 팀을 구성한 지 이제 3년. 지난해까지는 성적이 부족했다. 그러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탄탄한 팀워크와 결속력으로 본격적으로 실력발휘를 하고 있다.
선수출신이 없는 100% 아마추어들의 모인. 노력으로 이루어낸

순수 사회인 야구인들의 결승 진출이라 더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이들의 가장 큰 무기는 '연습'이다. 평일에도 야구 열정으로 연습을 멈추지 않고 있다.
노력의 결실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의 전략은 '지키는 야구'다. 부단한 연습이 발판이 된 수비가 최단장점. 최대한 실수 없이 전력을 유지하면서 실점을 막고, 역으로 상대의 실수를 파고들겠다는 각오다. 지난 9월 무등경기장에서 자체 청백전을 치르면서 결승의 무대도 익혀두었다.
▲단장:고기영 ▲감독:유제두 ▲코치:김태훈 조현 강두형 ▲선수:김희수 조강열 김용준 허민강 전민주 주민호 김중환 이세환 박종승 고성주 홍성우 유기룡 유휴창 오세민 문창민 황대훈 장선호

광일리그

◇무등산생태요양병원(대표 윤상연)
지난해에는 준우승으로 아쉬게 돌아섰다. 이번에는 우승을 향해 가자며 의기투합을 했고 마지막 한 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이미 실력은 소문이 났다. 개성 있는 선수들이 김선도 감독의 리더십 아래 하나로 똘치며 막강 전력을 과시하고 있다.
결승 무대에 오르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소수정예로 뛰다 보니 매 경기 부상에 가슴 졸여야 했고, 휴가를 내고 뛰어야 하기도 했다. 많은 노력이 더해진 만큼 더 욕심이 나는 우승이다. 올 시즌 광주 5관왕이라는 목표도 결승전 필승을 외치게 한다. 앞서 두 개의 우승컵을 들어올린 이들은 세 번째 포효를 준비하고

“올 광주 5관왕 위하여” “기동력 바탕으로 우승할 것”

무등산생태요양병원 VS 오렌지클래쉬

있다. 무등경기장은 이들에게 익숙한 곳이기도 하다. 여러대회 결승전을 치렀던 곳에서의 또 다른 우승 도전. 야구가 좋아서, 야구를 위해 몽진 이들의 열정적인 야구가 기다린다.
▲감독:김선도 ▲경기 이사:윤상연 ▲코치:정병준 최연석 채문기 유승룡 ▲선수:전용환 박종산 신병철 양동화 이범석 이대수 홍상진 이재형 김건국 육경완 김태용 박경남 장인장 장병용

◇오렌지클래쉬(대표 민상철)
최고이기보다는 최선을 다하자고 외치는 오렌지 클래쉬. 그러나 마지막 결승에서는 최고이고 싶다. 탄탄한 기동력을 바탕으로 우승 고지까지 밟겠다는 게 이들의 전략. 이광인·김민기 등의 빠른 발을 앞세워 뛰는 야구를 준비하고 있다. 1번부터 9번까지 선수들 모두가 한결같음이라도 더 뭉겠다는 각오로 그라운드에 선다.

누구보다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상대와의 만남이다. 상대의 약점과 장점을 잘 알고 있기에 쉽지 않을 한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무등경기장에서 뛰게 된 포수들의 움직임과 파울타구의 방향이 승부를 가르게 될 것이다. 실수 없는 경기, 후회하지 않을 경기를 하는 것이 이들의 또 다른 목표이기도 하다.
내로라하는 팀들이 격돌하는 무등기 무대. 그래서 더 우승을 통해 무등기 역사에 한 획을 그치고 싶은 야구 사나이들. 40대를 훌쩍 넘긴 박동원 감독의 노장 투혼도 눈길을 끈다.
▲감독:박동원 ▲코치:안민 ▲선수:민상철 김용두 니승희 송일도 류종철 이광인 임동범 최정민 한영현 홍승인 김희성 정광호 김재경 김석철 이상욱 김민기 조민 천재용 고통안 김희주 임두빈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무등산 생태요양병원팀.



오렌지 클래쉬팀.

1·2층 이태리가구

3층 통원목가구

4층 모던가구

5층 던롭침대

30%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

세계 최고 던롭침대 1년 한번 세일 11월 16일까지